

10명 중 4명 ‘나혼산’…광주·전남 1인 가구 53만3000가구

국가데이터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광주 36.9%·전남 37.7% 전국 평균 웃돌아

결혼 감소·고령화 영향…전국 800만 돌파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서 가운데 광주·전남의 1인 가구는 53만3000가구로 조사됐다. 1인 가구 비중은 전국 평균을 넘어서며 40%대에 육박했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1인 가구는 각각 23만2000가

구, 30만1000가구이며, 1인 가구 비중은 각각 36.9%, 37.7%로 전국 평균(36.1%)을 웃돌았다.

광주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29세 이하 19.6%, 70세 이상 17.9%, 30대 17%, 60대 16.6% 순이었다.

전남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70세 이상 32.4%, 60대 20.7%, 50대 16.7%,



자료:국가데이터처

연합뉴스

40대 10.3%로 집계됐다.

전국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남성

402만6000가구·여성 401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전년보다 0.6%p 상승하며 역대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 2023년 35%를 넘은 데 이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인 가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고 외로움도 더 많이 느꼈다.

평소 자주·기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은 48.9%로 전체(38.2%) 대비 10.7%p 높았다.

몸이 아플 때(68.9%), 돈이 필요할 때(45.6%), 우울할 때(73.5%)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비중은 모두 전체 평균(75.1%·51.4%·78.8%)보다 낮았다.

인간관계 만족도는 51.1%로 전체 가구(55.5%)보다 낮았고, 불만족 비중(7.0%)은 2.1%p 높았다.

거주 형태는 단독주택 39.0%, 아파트 35.9%, 연립·다세대 11.7% 순이며, 주택 소유율은 32.0%로 전체 가구(56.9%)보다 낮았다.

1인 가구가 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31.0%), 월세 보조금 지원(20.5%),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17.1%) 등의 순이었다.

1인 가구는 소득·자산·부채 모두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전체 가구 소득(7427만원)의 46.1% 수준이다.

소득 구간별로는 전체 1인 가구의

53.6%가 연 소득 3000만원 미만이었다. 1000만~3000만원 미만이 42.9%로 가

장 많았고, 이어 3000만~5000만원 미만(25.9%), 5000만~7000만원 미만(12.2%) 순이었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168만9000원으로 전체 가구(평균 가구원 수 2.25명)의 58.4% 수준이었다.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노후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 부담이 63.3%로 가장 많았고, 정부·사회단체 24.5%, 자녀·친척 지원 12.3%이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경제교육도 이젠 AI 기반으로 배워요”

광주경제교육센터, 전문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제) 광주연구원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최근 광주연구원 TN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하반기 전문강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AI와 경제교육’을 핵심 주제로 삼아,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경제교육 강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AI·경제융합 교육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오전 세션에서는 ‘AI 기초이론 및 경제교육 적용 전략’을 주제로 AI 기술의 핵심 개념과 최신 동향, 생성형 AI의 구조와 활용법,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적용 가능성을 다뤘다. 정인택 Academy 대표는 자신의 AI 기반 콘텐츠 창업 사례와 국내외 교수학습 트렌드를 소개하며, AI 기술이 경제교육의 콘텐츠 기회, 문제해결 학습, 시각·서사 기반 설명 방식에 가져올 변화를 제시했다.

이어 오후에는 ‘생성형 AI 기반 PPT 실습 및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승호 기자 photo25@gwangnam.co.kr

다. 조은혜 소프트웨어 전문강사의 안내로 Canva AI, Gamma, Genspark 등 생성형 AI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활용한 실습이 이뤄졌다. Magic Design, Deep Research 등 AI 자동 생성 기능을 적용해 교육용 PPT 구조 설계, 시각자료 자동 생성, 레이아웃 최적화, 현장 활용 슬라이드 제작 등을 실습하며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방법을 익혔다.

문연희 센터장은 “경제교육은 일상·산업·정책을 폭넓게 다루는 만큼, AI 기반 설명·시각화·맞춤형 콘텐츠 제작의 효과가 더욱 크다”면서 “이번 워크숍이 광주시의 AI 기반 교육혁신 비전과 맞닿은 시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경제교육 혁신원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역 경제교육 전문기관으로, 광주시와 협력해 경제교육·교재·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이어 오후에는 ‘생성형 AI 기반 PPT 실습 및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승호 기자 photo25@gwangnam.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연말 한정판 베이커리 출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연말을 맞아 지하 1층 베이커리에서 다양한 시즌 한정 베이커리를 선보이고 있다. 수제 쿠키로 만든 연말 한정 ‘쿠키 하우스’를 비롯해 독일 사람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얇게 잘라 먹는 독일 전통과자 ‘슈톨렌’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 분양심리 ‘급랭’…전망지수 3년만 최저

12월 ‘44.4’ 27p 급락…전국 최대 낙폭

미분양 산더미 속 단기 공급과잉 우려

광주지역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0·15 대책 이후 지방 부동산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광주는 미분양이 누적되고 수요 회복 속도가 더딘 지역적 특성이 있다. 이를 분석하면서 분양시장 심리가 빠르게 쇠약해졌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광주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44.4로 전월(71.4) 대비 27p 폭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낙폭이다. 또 지난 2022년 11월 40.9를 기록한 이래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광주지역 분양심리가 급락한 것은 공급 부담 증가와 수요 회복 지연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0·15 대책 이후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

은 실수요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분양시장에서는 오히려 관망세가 짙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금리 부담이 여전히 크고,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신규 물량이 일정 부분 몰리면서 사업자들은 단기 공급 과잉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8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 114가 공동으로 생산한 ‘공동주택 입주에 대한 물량’ 정보를 보면 광주에서는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1만3711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여기에 실수요 중심의 제한적 거래로 분양가 대비 기대수익이 낮은 시장 환경 역시 분양사업자의 체감경기를 냉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남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50.0으

로 전월과 같다.

한편,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

월(72.1) 보다 5.8p 하락한 66.3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6.2p(73.3~67.1), 비수도권은 5.8p(71.9~66.1) 하락 전망됐다.

또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6p 상승한 101.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해외수입 건설 원자재 가격이 뛰고,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7p 상승한 84.4로 집계됐다. 분양시장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은 상황이지만 건설사들이 PP 만기 연장 및 사업 재구조화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내 분양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1p 상승한 101.6이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선호단지 쏠림 현상이 나타나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지역은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분양시장 약국화가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



대촌농협, 농업 근간 ‘흙 살리기’ 워크숍

남해화학 여수공장서 비료 생산 전문교육

대촌농협은 최근 조합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의 근간인 흙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흙 살리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농업인들은 남해화학 여수공장을 찾아 비료 생산 과정을 직접 들려보고, 비료의 효능과 적정 사용량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으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가졌다.

대촌농협은 그동안 흙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환경 농법인 미생물 배양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올해에도 총사업비 1억3600만원을 투입, 시설하우스 28㏊에 공동배양미생물과 영양제를 공

급하며 생산 경쟁력 제고에 힘써왔다. 그 결과 대촌들에서 재배된 풋고추와 부추는 조작화된 체계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돼 있으며, 2020년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생산유동조직으로 광주시 내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옮기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출하 농업인의 실의 증대에 한몫 더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환형 조합장은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하도록 돕고, 그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산 경쟁력을 높여 출하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어촌공사, 내년 예산 1조 늘어난 4조7682억

재해예방·청년농 육성 지원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1조454억원 증가한 4조768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비롯해 태풍, 홍수, 기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예산 1조 늘어난 4조7682억원을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시설’ 설치에도 150억원을 집행한다.

물 부족 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농촌용수개발’에는 2134억원을 배정해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가뭄을 예방 할 방침이다.

‘맞춤형농지 지원’에 올해 대비 6943억 원 확대된 1조8077억원을 투입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뒷받침한다.

농업을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청년농업인으로의 농지 이양을 촉진하기 위한 ‘농지이양은퇴직 불’에도 297억원을 편성했다.

나주=조합원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신세계, 고객 응대 강화 협력사원 대상 ‘MBTI 교육’

주광주신세계가 서비스 교육에 MBTI 을 도입하며 맞춤형 고객 응대 강화에 나섰다.

광주신세계는 최근 협력사원을 대상으로 ‘MBTI 서비스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MBTI 검사를 통해 본인의 성격 파악하고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얻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MBTI는 성격유형 검사로 자신의 인식, 판단 등의 성향을 16가지 성격 유형 중 하나로 설명하는 심리 검사를 말한다.